

2023 새해 이렇게

정기명 여수시장

# “여수항 개항 100년...새로운 100년 신성장 동력 마련”



### 가막만 등 5개 만 특성 살린 중장기 계획 수립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본격화·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기반 확충

“2023년 새해는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실현을 위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국제행사 개최, 지역 신성장 동력 마련 등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간다는 의미의 ‘일신연풍(日新年豊)’을 신년 화두로 설정하고 행복과 풍요를 목표로 지역경제 회생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우선 가막만 등 5개 만의 특성을 살린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여수만 르네상스를 실현하고 2026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섬 박람회 주 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해 해외 참여국 유치 등 준비 기반을 다진다.

올해 4월에는 여수항의 지난 100년을 새롭게 조명하는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타임캡슐 설치 등 여수 개항 100주년 상징 사

업을 본격 추진해 여수항을 해양관광 거점항구로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10월 예정된 ‘제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대회’ 개최로 세계만연회 회원 도시 25개국을 포함한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보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과거 아픔 치유 노력도 세심히 살펴 여수사건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근거를 마련할 ‘특별법 개정’과 ‘여수사건 평화공원 유치’를 위해 시민 사회와 함께 역량을 모으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여수사건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 등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주 여건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과 화태~백야 간 도로

건설, 고속도로 여수 연장, 전라선 고속화 사업 등 광역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복지·문화 정책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려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수시립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예술 기반 확충, 문화예술재단 설립 등 문화예술 지원도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다.

어르신 무료버스 시행준비와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와 공공체육시설 확충, 어린이도서관 건립, 생각 키움 체험 놀이터 조성, 학생 중심의 교육지원 정책 재정립과 청년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점을 발굴해 나간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석유화학 안전 체험교육장을 조성해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또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제1의 해양관광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가막만 양식장을 정비해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추진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 유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물론 여수·광양만권 산단의 수소 생산거점과 소비거점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수소 공급 공용 배관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모은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함께 여수 맞춤형 미래스마트포 조성,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농·어촌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오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도시 품격을 향상시켜 여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과 공직 불문 해소를 위해 시청 본 청사 별관 증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여서청사를 되찾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순천시,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 대상 대폭 확대

### 1만2600여명 목욕·이미용 지원

순천시가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 이용 어르신까지 확대·운영한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해 12월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월부터 확대 지원한다. 1만 2600여 명의 어르신이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지계혈적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 월부터 월 1만원 기준 연 2회(1월, 7월) 지급하여 연간 최고 12만원이 제공되며 한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재신청 없이 반기마다 자동 충전된다.

기타 바우처 신청 및 가맹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노인복지과(061-749-6291)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기후대응 도시숲.

## 곡성군립노인병원

###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 국비 18억8000만원 확보

곡성군은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사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리모델링 사업 선정으로 국비 18억 8000만 원을 확보해 군립노인전문병원의 단열, 창호, 냉난방장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1월에 본격 착수해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은 2009년 준공된 시설로 28실의 146병상을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이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자로 치매 환자가 87%를 차지하고 있다.

곡성군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가 선정돼 국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 구례군, 탄소중립 실천 도시숲 6곳 조성

구례군이 기후변화 대응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권 주변 녹지 기반 확충 등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친환경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23년 도시숲 등 6개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기후대응 도시 숲 10억 원 ▲녹색쌈지 숲 5000만 원 ▲전통마을 숲 1억 원 ▲학교 숲 6000만 원 ▲신규 가로수 1억 5000만 원 ▲명품 가로숲길 1억 5000만 원 등이다.

국도변과 도심권 유휴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숲을 조성해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

지를 저감하기 위해 1ha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

또 도심 속 자투리땅에 조성하는 녹색쌈지 숲과 학생들의 녹색교육장으로 활용될 학교 숲, 훼손된 마을 숲을 복원하는 전통마을 숲 등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도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에 작은 힐링공간을 제공할 것이다”라며 “군민 누구나 쉽게 숲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